

챗GPT 지브리 소동, 저작권부터 AI 쓰레기 논쟁까지 확산

현재도 '작품 흉내' 명령수행 여전
작품·콘셉트, 저작권물 아니지만
원저작물 통한 학습 가능성에 논란
AI 생성물 따른 정보 오염 지적도
기업 'AI 쓰레기' 입장·연구 없어

전세계를 불태운 챗GPT의 '지브리 이미지' 소동이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논란부터 이용자들의 생성형 AI 오남용으로 인한 'AI 쓰레기' 등 다양한 논쟁점을 드러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픈AI가 GPT-4o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업데이트 된 후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른바 '지브리 소동'도 전세계적 규모로 일으켰다. 챗GPT의 지브리 소동은 챗GPT가 GPT-4o 이미지 생성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풍' 이미지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시작했다.

특히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지브리 풍 이미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지브리 풍 이미지 생성하기'는 다양한 논쟁점을 드러냈다.

오가 이끄는 지브리스튜디오의 작품을 흉내낸 이미지를 사람들이 생성하면서 '지브리 소동'이라는 말이 붙었다. 3일 현재도 GPT-4o는 '지브리로 만들어줘' 등 직접적인 지칭을 통한 명령은 거부하지만 작품을 흉내내달라는 명령은 수행하고 있다.

지브리 소동 후 오픈AI는 저작권 논

란의 한복판에 섰다. 특정 개인과 스튜디오의 '작품'이 과연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부터 AI 모델이 생성한 특정 작품의 AI 생성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논란이 됐다.

작품을 흉내낸 AI 생성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강력히 보호되도록 작품과 콘셉트 등은 저작권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AI 모델에서의 작품과 관련한 논란은 복잡한 데가 있다. 실제로 작품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 뒤에는 원저작물의 학습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 여부는 AI 모델 제작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AI가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작품을 무단으로 추출·재현했을 때, 원저작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시 된다.

지브리 소동에 따른 논란은 또 있다. 이용자의 생성형 AI 모델 오남용에 따른 문제다. 최근 해외에서는 'AI 쓰레기(AI Slop)'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만큼 AI 생성물에 따른 정보 오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2024년 9월까지 소비자 불만 접수, 기업 보도자료, 구인 공고, 유엔 발표문 등 3억 건 이상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AI가 개입한 콘텐츠가 폭증했다. 특히 챗GPT 출시 후 AI 사용에 따른 AI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10배 이상 늘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무의미한 AI 생성 저작물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AI 쓰레기 문제에 대해 오픈AI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과 연구가 나온 사례는 없다. 오히려 xAI의 '그록 3' 등 일부 AI 모델은 유명인사에 대한 이미지 생성까지도 막지 않으면서 오남용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모든 도구가 그렇듯 AI 또한 이용자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AI 모델을 개발,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용자들의 수많은 명령어가 결국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AI 쓰레기'의 난립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AI 기반 시장 정보분석 역량 강화

글로벌 데이터기업 케플러와 '맞손'
'AI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 완성도 ↑

SK텔레콤이 글로벌 데이터 기업 케플러(Kpler)와 협력해 AI 기반 시장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SK텔레콤은 3일 케플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케플러는 원유, 가스, 전력, 해운 등 40여 개 시장의 실시간 무역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글로벌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이번 협



신용식 SK텔레콤 AIX 사업부장(신용식)과 케플러 공동 창업자인 장 매니어 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SKT

력을 통해 SKT는 에너지·물류 데이터를 AI 분석 플랫폼과 연동한다.

특히 SK텔레콤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A.X) 4.0'과 'MCP(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 기술을 활용해 외부 데이터 소스를 실시간 연결·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시장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AI 마켓 인텔리전스는 LPG·LNG·유가 등 원자재 트렌드를 예측하는 기업용 B2B 서비스로, 에너지·화학·반도체·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SK그룹 계열사에 제공한 뒤 외부 고객사로 시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쿠광플레이, 'U17 아시안컵' 경기 생중계

오늘 '韓 vs 인도네시아' 경기

쿠광플레이는 23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에 나선 17세 이하(U17)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한다고 3일 밝혔다.

쿠광플레이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U17 아시안컵(이하 U17 아시안컵)'의 대한민국 전 경기를 생중계로 선보인다.

조별리그 C조에 속한 대한민국은 ▲4일 오후 11시 50분 인도네시아 ▲8일 오전 2시 15분 아프가니스탄 ▲11일 오전 2시 15분 예멘을 차례로 만난다.

아시아 16개국이 참가하는 U17 아시안컵은 'FIFA(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올해부터 대회에 걸린 월드컵 티켓이 4장에서



쿠광플레이가 17세 이하(U17)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쿠광플레이

8장으로 늘어났다. 8강에만 올라도 월드컵 본선이 확정되는 만큼, 대표팀은 일찌감치 월드컵 진출을 확정하고 우승을 위한 리듬을 맞춰가겠다는 각오다.

이번 아시안컵은 U17 대표팀의 23년 만의 우승 도전이다. /김현정 기자 hik1@

AI스타트업, 관세전쟁 속 美 공략 박차

뤼튼테크놀로지스, 1000억 투자유치
딥엑스, 인재영입 통해 시장확장 박차
퓨리오사AI, 하반기 美 자금 확보 도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AI관련 국내 기업들은 미국 대규모 투자유치, 현지 기업들과 협력 등 전략을 펼치고 있다.

AI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2021년 설립 후 4년 만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31일 뤼튼은 830억원을 추가 투자를 유치, 최종 108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라운드를 마쳤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지난해 6월 프리시리즈B 라운드(약 250억원) 유치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로써 뤼튼의 누적투자 유치액은 1300억원을 기록했다.

LLM, 반도체 등 굵직한 분야가 아닌 AI 플랫폼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누적

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내 최초다.

기존 투자사인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캡스톤파트너스뿐만 아니라 굿위터 캐피탈이 리드 투자자로 신규 참여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끌기도 했다. 굿위터 캐피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투자사로 쿠광·당근마켓·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한 바 있다.

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AI반도체 기업 딥엑스는 지난달 10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객 및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전 NXP 제품 마케팅 디렉터인 전재두 미국 법인장을 전격 영입했다. 딥엑스는 전재두 미국 법인장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딥엑스는 올해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주최 측인 CTA로부터 '꼭 봐야 할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미국 현지 투자사들이 현장을 방문해 딥엑스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

리벨리온도 미국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과 협력한다. 리벨리온은 지난달 열린 MWC25에서 미국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펄스솔루션스와 협력했다. 양사는 AI인프라 구축과 기업 테스트 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을 이어간다.

최근 메타의 인수제안을 거절한 퓨리오사AI는 올해 하반기 미국 자금을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다. 퓨리오사AI는 이달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KDB 넥스트라운드 인 실리콘밸리'에 참여해 현지 투자사를 상대로 기업설명회를 연다. 최근 메타로부터 1조2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제안 받은 이력이 하반기 투자 유치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국내 AI분야 스타트업의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26일 한국을 방문해 뤼튼, 업스테이지, 갤럭시오퍼레이션 등 국내 AI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향후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빛나 기자 vitna@

우아한형제들, 안정적 가게 운영 지원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접수 시작

우아한형제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 등으로 의료비가 필요한 외식업 업주들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 가동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사업의 4차년도 접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은 2022년 1차년도 668명을 시작으로 2023년 2차년도 186명, 2024년 3차년도 180명 등 기금 운용 이래 지난해까지 1000명이 넘는 사장님들을 지원했다. 누적 지원 금액은 36억원이다.

지원자는 연중 상시 모집하며,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카페를 운영하던 중 암을 발견해 도움이 필요했던 업주 A씨, 직접 야간 배달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업주 B씨, 조리 중 화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했던 업주 C씨 등이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 받았다.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은 우아한형제들의 창업자인 김봉진, 설보미 부부가 사회공헌 목적으로 설립한 봉앤설이니셔티브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우아한형제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봉진·설보미 부부가 약정한 200억원의 기부금 중 100억원으로 운용되며, 우아한형제들도 매년 기부금을 더해 기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